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대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음 10월 26일) 제16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따뜻한 연탄이 왔어요” 24일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은 전주시 덕진구 건자4길 일대에서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 ‘속수무책’ 시민 혈세 · 행정력만 낭비

### 시, 전북도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변경 독선이 빚은 ‘자가당착’ 굴레 피할수 없을 듯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전북도와 사업방식 변경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전주시의 무대책에 비판 여론이 거세다. 특히 전주시민은 물론 185만 전북도민들의 숙업사업으로 추진된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민선 6기 들어 김승수 시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현황에 민간 투자를 배제한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 시민 혈세와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을 두고 마찰을 빚은 전북도가 당초 약속과 달리 민간투자를 배제한 재정사업 방식의 사업 추진을 강행한 전주시에 대해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전주시와 함께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 추진 당사자인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주시가 (주)롯데쇼핑과 계약 해지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됐다”며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재개발 재정사업 추진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 지사는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기 앞서 롯데쇼핑과 개발 협약 해지 문제를 해소한 뒤 전주시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했다”며 “전주시가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방식 변경을 결정,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더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도 전북도는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가 2005년 12월 19일 체결한 전주종합경기장 무상양여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북도의 종합경기장 무상양여는 민자 유치로 호텔과 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는데,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재버리고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재정사업 방식을 변경,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송 지사는 또 “전주시가 롯데쇼핑과 법적 분쟁 해결과 현실적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투자심사 의견서 자체를 보내지 않을 것”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전북도의 강경한 입장에 민선 6기 들어 3년이 넘도록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 추진에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전주시의 대처 방안도 딱히 없다는 데 있다. 전주시는 전북도가 우려하는 롯데쇼핑과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중앙투자심사 재신청 전까지 해소하고, 대체경기장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는 원론적 입장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어 민선 6기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사실상 난방한 형국이다. 1963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건립된 전주 종합경기장이 50년이 넘도록 재개발 사업 추진이 미뤄져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된 데는 민선 6기 전주시의 무능과 독선이 빚은 ‘자가당착’이라는 굴레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재 기자

### “국정농단 ‘피의자’ 박근혜 퇴진”... 촛불은 더 거세진다!

## “내일 도민총궐기 참가자 최대 3만명”

전북시국회의 예상  
박 대통령 퇴진 요구 움직임 확산에 따라  
전주 관동로에서 집회  
군산 등에서도 열려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은 사상 최대



지난 23일 밤 전주시 오거리 광장에서 열린 청소년 시국대회에 참가한 300여명의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이번 주 예정된 도민총궐기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노동계·농민·대학생 등 각 계층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26일 도민총궐기와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는 사상 최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시국회의는 이날 열리는 정권 퇴진 제3차 도민총궐기에 도내에서 최대 3만명 이상의 도민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전북시국회의는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반격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전주 관동로 사거리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같은 시간 군산과 익산, 정읍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선 19일 전주에서는 약 1만5,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과 가

족·연인·친구들,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한 관광객들까지 점차 합류하면서 집회인원이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집회는 ‘피의자 박근혜’로 규정된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방패로 검찰 수사에 불응하는 등 사회적·계층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농민회가 주축이 된 ‘농민투쟁단’에서도 500대 이상의 트럭이 25일 상경해 트랙터 행렬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출발했으며, 동군은 지난 16일 경남 진주에서 출발해 경북과 충북, 경기지역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서군은 15일 전남 해남에서 출발한 전북과 충남의 각 시·군을 거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광화문 참여 집회들과 함께 1박2일 투쟁에 동참한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30일 정치총파업을 벌인다. 전 조합원 4시간 이상 파업 돌입 지침을 내린 상태다.

### 대학가들 동맹 휴업 전주교대는 오늘 추진

대학가는 동맹휴업에 나선다. 전주교대를 포함한 숙명여대·성공회대는 25일, 서울대는 30일 동맹휴업을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고려대·서강대·홍익대·인천대·부산대·교대연합 등 18개 대학은 25일에서 다음달 2일 사이에 동맹휴업을 추진한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본질을 해쳐 놓았으며, 더이상 국민으로부터 정부의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우리 예비교사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돼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와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 끊임 없이 행동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고민형 기자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안, 국회 운영위 통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도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안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현행 국회법은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이 제출되는 경우 본회의에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한이 지

나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돼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 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을 민방위대에 편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의결됐다. 증인 채택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이 증인출석요구 시 신청자인 국회의원이 이통과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신문 결과를 적시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다. 이번엔 통과된 개정안들은 12월 1일 열린 제346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

※토·일요일신문 읽니다.

남원에촌  
NAMWONYECHON BY KENSINGTON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천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하다.

남원시와 (주)이랜드 파크가 함께하는

## 명품 한옥 ‘남원에촌 by 캐슬턴’ 그랜드 오픈!

‘22년간 여유와 힐링이 있는 명품 한옥에서 자연을 벗삼아 느낌에 머물다!’

남원 에촌은 최기영 대목장을 비롯한 문화재 명장들이 옛 조상들의 지혜와 가치를 살리고 공정을 담아 순수 건축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명품 한옥입니다.

남원시청 문화관광과 : 063-620-6174 남원에촌 by 캐슬턴 : 063-636-8001-8003 www.NAMWONYECHON.com